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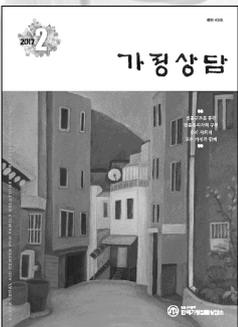




지난 1월 13일 본소 강당에서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관련기사 26면)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27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4• 이 달의 메시지
- 6• 특집 | |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8•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10강
- 15• 가정폭력상담실
- 18• 인터넷 상담
- 19• 좋은 책
목자, 공자를 읽고 일어난 천민 사상가
- 20• 결혼과 인생(168) 영화 이야기
미씽 _ 김용언
- 22• 임상실습 소감문
- 26• 상담소 소식
- 29• 지부소식
- 30• 상담통계
- 31• 백인번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모두에게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회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명절과 소풍이 즐겁지 않다면 어른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즐겁게 보내시라’고 덕담을 주고받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사실 그날은 모두 즐거운 시간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 차례며 제사 따위 왜 지내는지 모르겠다는 불멘소리도 많지만, 관혼상제에 일정한 형식과 예를 갖추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고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전과 다른 형식이 등장하거나 이전의 복잡했던 형식들이 간소화 되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명절이란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았던 부모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유교와 농경사회 남성 위주 가부장제의 대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명절의 풍습은 오늘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가족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지나쳐서는 안 될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혼란이 겹치고 국가와 사회가 가족정책에 손 놓고 있는 현실이 더해지면서 가족관계, 가족문화 전반이 문화지체를 겪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찾는 귀성을 포기하고 일터를 지키거나 다른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를 몇 차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 부모 형제나 친척들을 만나기 꺼려진다는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기혼 미혼을 막론하고 젊은 세대들은 절제되지 않은 어른들의 언어를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어디 갔니?’ ‘언제 졸업하니?’ ‘취직은?’ ‘결혼은?’ 취직 했거나 혼인한 이들에게는 ‘연봉은 얼마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둘째는 왜 낳지 않냐?’ 는 무차별적인 질문이 쏟아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어렵게 귀성길 차표를 예매하거나 딱 막히는 고속도로로 나서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겪는 취업난과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 상황은 국가, 사회, 기성세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현실에 맞는 우리 정부의 가족정책 부재는 가족의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정부가 이 시대에 맞게 제대로 된 가족정책을 입안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하루바삐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을 해소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인을 감소와 출산감소를 막고 한 편으로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정이 튼튼한 반석 위에 자리잡게 되면 그 안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는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와 국가의 안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세기는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딸과 아들, 며느리와 사위에게 이중 잣대의 가치관을 들이대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제사나 추도식 혹은 차례나 예배가 그 본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로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물질적 여유로 부모를 평가하는 일부의 흐름도 하루 속히 없어졌으면 합니다. 고향을 떠나 생활하던 모든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이른바 잘 나가는 아들, 딸이 아니어도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부모 형제와 만나 안부를 묻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국민 개개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기획되고 정직하게 실현되어 고령화가 곧 노인빈곤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또 가족갈등과 불화의 요인이 되는 현실이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명절이 누구에게나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흐뭇한 날이 되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특

집

1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의 해

60년 역사를 기반으로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 활성화에 더욱 노력 창립 이후 처음으로 본소에 관한 라디오 광고 시작

2016년 창립 60주년의 해를 보낸 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의 창시자로서 지난 6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등의 출장상담과 미즈넷 등의 인터넷 상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운데 법률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출장 법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법의 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연구·출판·홍보 사업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16년 11월 정기 후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17년도 사업계획을 요약·정리 하였다.

법률구조 사업

1)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미즈넷, 야간상담의 내실화와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영 어법률상담, 심리상담의 확대, 쉼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순회상담을 비롯, 법원위탁 협의이혼전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에 관한 소송구조와 가정폭력피해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소송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부부·가족상담 및·음주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인 동지교실 및 부부캠프와 피해자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한다.

3) 법률계몽사업

법의 생활화와 가정 내 양성평등,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률해설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널리 홍보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및 본소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계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본소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시작한다.

법 개정 및 제정 운동

가족법 개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가족법 개정을 위한 노력한다. 또한 개정 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부설치 및 지원사업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부를 신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부 실습생 지도, 지부 소장 간담회와 임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상담의 질적 제고 및 지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부 순회 점검 및 상담 및 통계 프로그램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및 예방·치료사업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로써 법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장 법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 교원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 또한 2개월에 한 번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임상교육, 사회복지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임상실습, 사법연수원생 상담봉사, 대학생 봉사학점 이수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조사·연구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의 문제를 근거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를 가족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자료실 운영

법률, 가정, 여성관련 전문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자료실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 또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수종을 확대 하며 서고 및 각종 파일과 행정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출판·홍보 사업

2016 개정 가족법 홍보 리플릿 발행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2016년 창립 60주년을 기념으로 기획하였던 상담소 역사 관련 전시를 상설화하도록 준비한다.

전산

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 상담소 홍보를 위한 웹 메일 편집 및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담소 홍보를 연중 지속한다.



친밀감, 관계의 유형, 정서적 거리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오늘은 외도와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강의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외도를 해도 된다.’ 라고 들릴 수 있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배우자의 외도로 상담을 오는 경우 너무 아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상담자가 배우자에 대해 조그마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그만큼 아픔이 큼니다. 외도로 인한 아픔은 마음의 ‘아픔’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외도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릴 정도로 힘들어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MRI로 분석해보면, 외도소식을 접할 경우 신체가 아팠을 때에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부위의 뇌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아픔이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I. 어디까지를 외도로 생각할 것인가?

사랑은 개개인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규정됩니다. 남성은 섹스만 없으면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다릅니다. 이러한 남녀의 관점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상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인 한 여성분은 처음엔 남편의 가게를 찾아와 일을 배우며 함께 가게 일을 돕겠다고 하여 월급을 적게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초창기에는 아내도 이 여성분과 함께 밥을 먹는 등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내의 앞에서 여직원을 칭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둘이서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일이 늘어나자 부인은 남편에게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왜 그런 말을

* 2016년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2017년에도 계속된다.

하냐며 황당해하기만 하였습니다. 덧붙여 본인은 아무 일이 없으니 아내에게 언제든지 회식자리에 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남편이, 부인대신 다른 여자에게 의존하게 되었으니(즉, 예전에는 부인이 최고라고 하더니 이젠 그 여자가 최고라고 하니), 부인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머릿속에서 1순위였던 부인이 지금은 ‘아이를 보는 사람’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II. 외도의 유형

1. 절망적 출구로써의 외도

여성은 부부갈등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일어나는 ‘절망적 출구로써의 외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성의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남편은 일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쁘다보니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줄 뿐,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2년 터울의 아들을 둔 부인은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아내에게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부인은 남편에게 더 이상 이렇게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심각한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지만, 부인의 외로움은 지속되었습니다. 부인은 점점 더 우울해져갔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부부의 소통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초등학교 남자동창이 미국에서 돌아왔으니 오랜만에 함께 보자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대화하고 과거 시간을 돌려 말을 듣다보니 너무 즐거워서,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따로 썼지만 어쩌다보니 함께 여행을 간 것을 남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남편이 부부 상담에 응하면서 부부가 상담을 왔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고 절망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남편은 이번에는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행히 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동감하였습니다. 또 상담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과거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바쁘고 말이 없으신 분이었으며, 친정어머니는 당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 딸인 부인을 잘 돌보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내는 안정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여자에게 있어 사랑은 밥과 같다고 설명하고는 합니다. 아무리 남편과 같이 살아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밥을 굶는 것처럼 아내는 허기지게 됩니다. 일정수준의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야 여자들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마른 화분처럼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일을 우선시하기에, 아침에 아내의 얼굴을 보고 회사를 가고 저녁에 얼굴을 보는 등 아내와의 관계가 최소한 유지되지만 하면 부부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보부상들이 7년 동안 집을 나가 장사하러 다니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었죠. 그런 이유로 남성들은 여성이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꼭 말로 해야 하나” 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 부부의 경우, 상담과정에서 부인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경우 어릴 때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이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을 잘 벌어야 이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기 상담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영영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내가 바람을

꿨으니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는지, 또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등을 서로가 알게 되면서 부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부인에게는 ‘절망적 출구로써의 외도’를 한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만을 사랑했고 또 남편의 사랑만을 원했지만, 그 사랑이 장기간 주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적 단정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이 절망적 출구로써의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데, 여성의 경우에는 복종을 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남성은 공격을 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때문에 여성에게 공격당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즉, 부인이 강해서 남편을 하대하고 시집보다 친정이 잘 살아, 시집을 무시하고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에는, 남편 쪽에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무리 부인에게 전달하려고 해도, 부인은 지속적으로 남편과 시댁의 무능으로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섹시리스 남성의 경우, 여성이 공격한다는 심리적 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은 쉬운 상대와 성매매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절망적인 외도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2. 일반적인 외도, 보통의 외도

제일 많은 유형의 외도입니다. 매춘에 대한 법이 나오기 전에는, 매춘이 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 가기 전 남자들의 총각파티가 대표적인 매춘이었죠. 또 서울에서 관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창이 있어서 기생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외도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쾌락으로써의 외도입니다.

이성을 만나 쉽게 섹스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

다. 이러한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뺐을 때, 배우자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뻔뻔한 경우죠. 여성들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알면, ‘내가 바람피우는 것을 네가 용납하면 같이 살고, 용납 못하겠으면 이혼할게.’라고 말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원하는 외도의 방식은 이러한 것이지만, 만나서 섹스만 하는 외도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 합니다. 여성들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외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외도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연애 초기의 남녀는 서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쿨하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은 남성에게 감정이 깊어집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이 집에 가야한다고 하면, 여성은 아내를 보러 가느냐는 등의 말을 하게 되며, 남성이 이전과 달리 선물을 주지 않아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도를 알리기도 합니다. 남성들이 바람을 피울 때, 바람피우는 상대 여성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여성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프리섹스를 쉽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쉽게 헤어지고 만나는 성에 자유로운 나라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한 시점에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즉, 한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프리섹스는 아닙니다.

2) 두 번째는, 복수로써의 외도입니다.

이 유형은 배우자에 대한 분노나 불만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도로 연결 짓는 경우입니다. 남성들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물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힘이 센 남성들이 유리했었지만,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폭력은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들보단 여성들이 말을 더 잘하죠. 그러다보니 남성들이 백전백패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

니다. ‘네가 남자냐, 나도 너랑 하기 싫어.’와 같은 심한 말을 들으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에게 자신이 지배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뒤로 외도를 하며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대화가 없는 부부의 남편들은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외도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히스테리성 바람둥이들의 외도가 있습니다.

카사노바와 같은 바람둥이들은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이 이에 해당했었는데, 그 사람은 잘 생기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인은 어느 여자든 유혹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부인하고는 관계가 잘되지만, 다른 여자와는 관계가 안 된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상담을 받으러 왔던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을 잘 유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카사노바는 만남의 초기에 여성을 유혹하고 말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카사노바가 일반인과 다른 점은 거절에 대한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싫다.’라고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아, 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당하면 별 생각 없이 다른 여자를 찾아갑니다. 때문에 수많은 시도 끝에,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남편과의 관계가 안정적인 여성이 이런 유혹에 넘어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카사노바는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외로워하는 여성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런 여성을 공략하고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을 유혹하고 관계를 맺는 것만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난 여성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차원적인 열정적인 사랑만 하고, 고차원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능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성은 남자가 아무리 성적 매력이 있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의 옆에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성 남성의 경우 바람만 많이 피우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은 비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II. 여성의 경우

물론 남성만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이 바람을 피우려면, 상대인 여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성 중 직업여성이 아닌데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성적인 뇌를 가진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적인 뇌를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를 선호합니다. 여성적인 뇌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도 바람을 절대 피지 못합니다. 남성적인 뇌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남성들과 같은 형태의 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IV. 외도라는 관계

외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상상 속에서 외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외도하는 남성들은 사실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남성들은 외도를 할 때에 가볍게 관계를 가지고 쉽게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아무리 외도로 만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맺으면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즉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는, 마치 배우자처럼 자신에게 사랑의 관계에서 남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원합니다. 때문에 외도한다면 처음에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인과 다투는 것과 같은 갈등이 재현됩니다. 그러면 부인과의 충돌에 더하여 상간녀와의 갈등이 추가하여, 두 배로 힘들게 됩니다. 어떤 바람도 행복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특성이 매우 다릅니다. 남성들은 본인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데, 아무리 착한 여성, 양보하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바람피운다는 것은 여성에게 해야 할 의무를 두 배로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쉬운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V. 외도에서의 남녀차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호텔 침대에 누워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연애편지를 쓰고 있다.’

첫 번째 줄의 글은 성적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두 번째 줄은 정서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성에게 첫 번째 글을 읽게 하고 뇌 영상을 촬영하면, 분노·공포와 관련된 중추가 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의 남성은 ‘죽여 버리겠어!’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글을 읽을 때에는 혐오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만 반응할 뿐입니다. 성적인 외도를 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덜한 것입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편지를 쓴다는 글을 볼 때에 더 힘들어합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성적외도로 인해 아이가 내 자식이나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마음을 뺏겼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직원을 칭찬하는 남편이 싫다는 아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성은 정서적 외도를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직업여성과 관계를 갖는 건 넘어가도, 옆집여자나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챙기는 것은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여성이 남편의 외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적 관계의 여부가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와 아이의 자리를 뺏길 위험이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VI. 의심과 의처증·의부증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망상장애로서의 의부증과 의처증

통상 언급되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망상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외도에 대한 망상이 현실성을 벗어나기 때문

에, 보통의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인데, 50분 만에 왔으니 그 시간만큼 외도를 하고 온 것이라는 생각 등입니다.

2. 정상적인 의심

초기의 부부는 아직 서로에게 맞춰지기 전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모임을 다녀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의 의심입니다.

3. 애착의 문제로 인한 의부증과 의처증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① : 남자 친구는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실력 있는 의사다. 배려 있고 외모도 좋고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교수인 명문가 집안의 자제이기도 하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여자 친구의 핸드폰을 보는 것이다. 너무도 당당하게 서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알고 지내왔던 이성의 전화번호는 다 지우자는 제안을 한다. 혹 여자 친구가 알아왔던 말 그대로 친구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 어느 날 잠시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 친구의 카톡에 장교로 군에 간 친구와 단체로 만나자는 약속을 보고 난리가 났다. 자신이 몰래 핸드폰을 보았다는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만 흥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자 친구는 자꾸 숨기게 되고 별일 아닌 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는 한다.

남자친구는 어린 시절 부모가 같이 유학을 갔을 때, 부모와 떨어져 오랜 기간 친할머니와 살다가 편찮으신 후에는 외할머니와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번 부모가 서울에 나왔다가 학기가 시작될 때 떠나곤 하는 것이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와 같이 살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

터였지만, 부모는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부모님과 의 관계가 지금도 서먹합니다. 다행히 학교 성적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 이 커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안정적 관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는 예기적 불안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 ② : 남편은 친구도 좋아하지 않고 아내와만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무조건 가족들과만 같이 지내려고 한다. 그렇다고 가족들과 같이 잘 지내는 것도 아니다. 퇴근하고 들어오거나 주말이면 그저 가족들이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아내가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가 일을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남편의 의심이 시작되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난다. 그리고 참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

→ 이 사례의 남편도 어릴 시절 부모와 일찍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5세경에, 아버지는 7세경에 돌아 가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불안함이 잘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아내는 남편을 한심하게 보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더 불안해지죠. 이를 해결하려면 아내가 남편의 불안함을 인정하고 다른 관계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서서히 자식과의 관계 등을 만들 수 있게 도와 해결하여야 합니다.

어렸을 때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에는 머릿속에 엄마가 있으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늘 안전부절 하며 엄마를 찾게 됩니다. 이 사례의 남편도 따뜻한 아내를 만났다면 좀 더

초기에 고쳐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커플의 경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태도를 바꿨고,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등을 함께 처방하여 아내와 떨어졌을 때의 불안함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약물은 고통을 줄여줄 뿐, 실제 변화는 두 사람의 협조에 따라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4. 배우자의 외도 후의 의처증과 의부증

- 실제로 남편이 외도한 후, 의심을 하는 것도 의처증·의부증으로 볼 것인가?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봅시다. 사례의 남편은 교사로,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내가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불안은 그룹으로 공부하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가 2년 전 발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정에 헌신했던 아내는 심한 우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부인은 남편이 자신과 같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얼마 전 남자교사들과만 저녁식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리에 여교사 한명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부증은 남편이 외도 사실이 없는데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의해 의심을 하는 망상장애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실질적으로 외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아내의 과도한 의심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외도를 한 남성들은 몇 년 전의 일로 왜 아직도 집착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가지는 불안함을 인정하고 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할 경우에는 미리 전

화를 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말이죠.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노력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상담할 때면, 아내에게 남편을 '의심'하기보다 남편에게 '요구' 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더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주지 않은 경험이 많다보니, 잘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의심하는 것보다, 아내가 외도에 대한 말을 줄이고 함께 운동하는 등 관계회복을 요구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해주면, 여성들에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에 안정감이 생기고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5. 우울의 변형으로써의 의부증과 의처증

여성들 중에는 자기주장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알아서 여성의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경우는, 결혼 전이거나 남편이 잘못했을 때뿐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에 대한 요구는 잘하지만 자신에 대한 요구는 잘하지 못합니다. 요구를 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을 못하다 보니, 점차 쌓이게 됩니다. 이 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잘해준다면 더 불안해져서, 남편이 바람피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래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굉장히 센 편이었고, 반면 아내는 원하는 바를 요구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후, 남편은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좀 더 잘하지 못하였다며 느닷없이 화를 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부인도 아는 동창생을 만나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은 만남이 잦아지면서 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이제 이런 일까지 벌이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모두 들어보면 두 사람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의 의심이 격해져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이전에는 여렸던 부인이 외도문제에서는 집착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경험하고 남편이 힘들어서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부인이 과거부터 남편에게 너무 많이 당해왔으며, 심한 말과 폭력도 예사였습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부인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부인의 불안을 제거 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를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약한 자신이 반대로 강하게 행동하면, 과도하게 부인을 억눌렀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내의 의심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의심과 같은 종류의 문제는 정신과치료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가 크거나 자신이 약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니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깔려있는 것이죠. 열등감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만들어지는 의처증 · 의부증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상의 기저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의심의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을 나쁘다고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게 된 배경이 있는 약자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도 의심을 정당하게 다룰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에 대해 다양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해결의 실마리 찾기도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음주문제상담 1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2회 등 총 30회 실시

상담기간

2015.12.4. ~ 2016.7.11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38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37세, 38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5년 8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본 건 이전에도 행위자는 가정폭력으로 6개월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본 건 발생 시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이후 마음을 돌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행위자는 상담에 열심히 임하면서 음주문제 행동에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2월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재발하여 상담자가 엄중 경고한 사실이 있다.

행위자의 음주문제 외에 경제적인 문제도 부부의 갈등원인으로 나타났는데 행위자는 매우 검소한 삶이 몸에 베어 피해자의 경제관념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음주문

제상담의 집단구성원 중에 피해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 피해자를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행위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가족 구성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주상태는 다소 심각한 상태이나 직업상(호프집) 자신의 음주상태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술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음주문제상담 종결시점에는 술을 마실 경우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여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자리를 피한다는 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가족 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직면해 보기도 했다.

상담 종결 시점에 피해자는 행위자가 이전에 0점이었던 지금은 40점 정도 되며 술은 마시지만 문제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이전에 비하여 당당하게 맞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이 과한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싸우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5버3***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7회,
교육강좌 5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5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5회,
부부상담 5회 등 총 34회 실시

상담기간

2016.1.25.~ 2016.7.13.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6년이 지난 2013년에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년 만에 재결합한 사실혼 부부로, 부부 사이에 1남 1녀(27세, 29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5년 9월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아침에 밥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물컵과 그릇을 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티슈 상자를 던져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피해자는 초상담에서 행위자의 보복성 음주와 금전 요구로 갈등이 심하였는데, 법적 제재에 대하여 인식한 후 전화 괴롭힘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행위자에게 음주문제가 있으며 본인도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적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데 술과 자녀폭력을 가장 큰 갈등원인으로 꼽았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행위자에게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며 집을 나가라고 하였지만 행위자가 돈을 요구하여 부득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행위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혼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행위자는 일주일에 2~3번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셨는데 매일 마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중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와 자녀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고 하면서 친구와 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답답해하였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자녀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술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끊을 수도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참여한 부부집단상담에서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 영향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인 아내, 아들, 딸 모두와 관계가 나쁘고 그 이유를 상대방 탓이라고 여겨왔는데 상담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부집단상담에서 행위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행위자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사실혼을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행위자가 사건 이후 언어폭력은 하지만 신체적 폭력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행위자를 “알고는 있으나 실행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안타깝게도 행위자는 상담종결 한 달 전 쯤 화분 관리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으며 행위자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부부간의 오랜 갈등과 폭력 재발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6회,
교육강좌 5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5회 등
총 32회 실시

상담기간

2015.7.22. ~ 2016.7.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24세, 19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5년 4월 사건 당일 새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억울하다며 항고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상담자가 이미 항고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항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상담에 임하지 않았다.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항고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되었고, 법원은 상담위탁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는 신혼 때부터 화가 나면 리모

권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가와의 갈등, 행위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음주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피해자는 행위자와 대화하기 싫어지고 친구들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부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조카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행위자는 신고사실 그 자체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감을 표출하였다고 한다.

행위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고 처분기간이 연장되면서 법적 제재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이후 상담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행위자는 집단상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혀 변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며 아침밥도 해주지 않는 등 행위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행위자가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관계 개선을 위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행위자로부터의 무시가 느껴진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행위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상담 종결시점에 행위자와 피해자는 혼인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일치하였지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행위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였으며, 갈등 발생 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폭력재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건번호 2016바*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4회, 집단상담 10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6.3.2. ~ 2016.8.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지 21년 되었다. 2년간 별거하다가 2014년에 재결합하였고, 부부사이에 2녀(19세, 17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5년 11월 사건당일 밤, 피해자가 챙겨준 와이셔츠가 누렇게 바래 모임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먹살을 잡고 밀친 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관찰 및 본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오래되었고, 행위자 자신에게 다혈질적인 성격과 욕하는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결혼 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고부갈등 속에서 어머니 편만 든 사실과 경제문제도 부부갈등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 사건 이후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부부가 서로 참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점을 답답해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 명령조의 말투, 경제적 통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 사건 법원 결정 이후에도 행위자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참고 지내겠다고 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로 행위자가 음주문제를 개선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 소중함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행위자의 상담이 진행된 후 부부집단상담을 꾸릴 때 피해자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행위자만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야간의 집단상담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폭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상담 기간 동안 폭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및 두 딸과도 잘 지낸다고 하였다.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상담받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 초기 피해자와 같이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 혼자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피해자 상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상담을 통하여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장기적인 인생계획도 설계하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잔소리를 줄임으로써 갈등촉발의 여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고, 폭력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Q

저는 6개월 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은 예전 주인에게 집값을 모두 주었고, 제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주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자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저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제가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상 퇴거청구 및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전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 3조 제4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이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위의 집에서 살면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 주인이 아닌 현재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현재의 집주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40조 참조) 귀하는 현재의 집주인에게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만 계약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차임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차임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난 천민 사상가



임진순 지음, 시대의 창, 2013

교육방송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백가' 중의 '묵자, 정의 없는 세상에 분노할 때' 편이었다. 제목 전체가 가슴을 훑 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묵자'라고 하면 단 한 줄만 기억에 남아 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던 '묵자 = 겸애, 동양의 그리스도교 사상', 학력고사를 위해 그저 외웠던 단 한 구절이 절망과 정의구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요즘의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절망, 정의, 분노 같은 단어들에 마음을 울렸다. 사실 '정의구현'이라는 말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우리 세대에게 작금의 '창조경제' 같은 것이어서, 그 말을 그 뜻 그대로 써 본 기억이 별로 없고, 미운 짓 하는 놈을 쥐어박을 때에나 그 말을 썼다.

그러하여 묵자에 대한 책을 찾아 읽은 것이 이 책 『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난 천민 사상가』다.

묵자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 중 묵가를 대표하는 위인으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송나라 사람이라 하였으나 많은 묵자 연구자들은 그를 공자와 같은 노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와 그의 무리가 머무르고 활동했던 공간적 배경도 노나라로 보인다는 설이 많다. 본명은 묵翟(墨翟)이고, '묵'을 성, '적'을 이름으로 보는 게 통설인데, 그에게 '翟'를 붙여 존경을 표하였다. 그가 활약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450년에서 390년 사이로,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며, 대략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 뒤에 태어나, 맹자가 태어나기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예수보다 약 4백여 년 가량 앞서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사는 비결을 전수하였다. 『묵자』의 핵심 사상은 겸애와 비공으로, 유교나 도교와 차별화된다. 그가 말한 '겸애'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였으며, 2,500여 년 전에 만민평등과 반전이라는 인류번영의 보편적 가치를 주창했다. 그는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에 "전쟁이 없는 세계,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생활을 누리

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세상을 꿈꾸며 희망하였던 것이다." 즉 묵자의 겸애란 바로 통치 체계, 사회 체제를 통한 최대다수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내지 욕망, 욕구 충족이며 욕망과 욕구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바라고 가지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사랑이나 관념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발 딛고 서있는 것이다.

이익에 대한 추구를 금기시하던 공맹과 달리 묵자는 '효도란 부모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묵자는 천지, 하느님의 뜻은 결국 하층민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고 그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수렴되어 나온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백성의 뜻을 모아 공의를 세우고 그 대원칙을 철저히 일원적으로 정비한 군주 중심의 통치 권력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천하에 집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천하가 어지러운 것은 천하의 의를 맡게 만들 지도자가 인민에게 없어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하고 능력 있고 성스러우며 지혜롭고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 천자로 세워, 천하의 의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리적까지 바라지도 않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다.

흔히 춘추전국 시대를 혼란으로 이야기하지만 당시 묵자가 꿈꾸었던 이상향과 오늘의 이상향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 또한 춘추전국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묵자의 사상을 지향했던 무리 즉 묵가들의 상당수는 무사들이었고 그들은 준군사조직으로써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통일제국이 들어서며 전제 왕권시대가 열리자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른바 강호의 험객이 되었다는 설명도 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사상의 발견 혹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얻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강연식 만연체의 문체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다.

이 숙 현 편집부장

미씽

감독 이연희

출연 엄지원, 공효진, 박해준, 김희원



〈미씽〉은 반 년 전 개봉한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에 이어 엄지가 탐정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이다. 영화는 워킹맘 지선(엄지원)의 숨 가쁜 일상을 차근차근 보여주며 시작한다. 늘 다른 여자와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는 별 관심 없던 의사 남편과 이혼한 지선은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 딸 다은을 돌봐주는 조선족 입주 보모 한매(공효진) 덕분에 드라마 홍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유독 늦어진 퇴근 이후, 지선은 한매와 다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발견한다. 뒤늦게 경찰과 가족에게 알리지만 양육권 소송 중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받을 뿐이다. 지선은 집 앞을 서성이는 남자 현익(박해준)과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증언 앞에 더 큰 혼란에 빠진

다. 그리고 한매의 이름과 나이, 가족 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스터리 혹은 스릴러에서 여자가 주인공이 될 때, 정확하게는 피해자 - 그 수많은 미스터리와 스릴러 작품들에서 여성을 피해자이자 희생자로 다루는 잔혹한 방식들을 생각해 보라. 그 여자들은 주인공 남성이 분노하고 각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녀들이 죽는 방식은 잔혹할수록 이야기도 뜨거워진다 - 가 아닌 탐정이 될 때, 아직까지 ‘엄마’의 위치야말로 한국 관객들에게 가장 쉽게 납득 가능할까? ‘엄마’야말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의 무시무시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위치라는 합의가 이뤄진 걸까? 소설 및 영화 〈나를 찾아줘〉의 잊을 수 없는 주인공 에이미-엄마가 아닌 유부녀-가 공감과 혐오를 동시에 자아내는 인물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직 국내 미개봉작이지만 원작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걸 온 더 트레인〉에서는 헤어진 남편에게 집착하는 알콜 중독자 레이첼은 ‘비호감’ 여성 캐릭터가 어떻게 극에 숨 막히는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좋은 예를 보여준다. 한국 영화에서 아직까지 스릴러의 여성 주인공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족 내의 엄마라는 위치에서만 출발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할 수 있다.

〈미씽〉에서 가장 놀라운 점. 워킹맘 지선과 보모 한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위치가 대단히 다른 것처럼, 둘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 두 사람은 모두 부계 사회의 희생자이며, 매일매일 가혹한 정신적/육체적 폭력 속에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도 돌아보지 못한 채 생존에 급급하다. 영화 초반 20분 정도에 묘사되는 지선의 일상,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할 만큼 바쁜 업무 속에서 이혼한 남편과 시어머니, 지선에게 사사건건 비판적인 변호사, “드라마 홍보 담당은 슈퍼 을 아니냐”며 올려대는 제작사 대표 등 지선이 수없이 굽신 대고 사과하고 매달려야 하는 인물들만이 득실거린다. 그리고 영화 중반 넘어가서 드러나는 한매의 과거 역시, 돈에 팔려오다시피 낯선 땅으로 시집왔지만 모진 시어머니로부터 ‘자식 낳는 도구’ 취급만 당하고 머리가 좀 모자란 남편은 그녀를 육체

적, 성적으로 학대할 뿐이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어가 자유롭지 못하다. 지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매의 외침 또한 불분명한 단어들과 더듬거림 속에 그대로 허공으로 흩어진다.

사라진 아이와 보모(계속 ‘이모님’ 이라고 불리는 이 직종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기이한 ‘유사 가족’의 지분이 흥미롭다)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에는 형사들보다 엄마의 본능적인 움직임, 엄마만이 알아챌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이 유용하다. 이웃집으로부터 증언을 끌어낼 때도 경계심을 푸는 뭇은 지선의 전담 역할이다. 남자들이 으박지르고 화를 내는 데 반해, 여자들은 즉각적으로 핵심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처음엔 복수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결국 지선과 한매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면서 자신들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느낀다. 통상적인 스릴러 영화와는 꽤 다른 방식의 결말에 대해, 이 ‘연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도 꽤 있었을 것 같다. 아마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특히 여기서는 ‘엄마’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것 같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소에서 실습 및 기관연수를 마친 각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사법연수원생의 실습 및 연수후기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구 자 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 지 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시절 다양하게 개설되는 여성학 수업들을 통해 젠더 법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입양특례법’ 개정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의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위원 선생님들의 배려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상담참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모든 폭력 가정이 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치된 상처는 상대방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증폭되며, 상처의 원인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바라기만 해서 생긴 것 같다”는 상담에 참가하신 할머니님의 말씀이 공감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에 아직 그 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접하지 못했지만,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부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초기부터 부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지속했을 때 최고의 수혜자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신 상담위원 선생님, 변호사님 덕분에 알찬 2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4월 두 달간 과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활동을 했을 당시에는 법률구조 법인이라는 곳 자체가 생소하고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기에 두려움도 있었고 실수하거나 폐를 끼칠까봐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주간 실습을 하면서는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상담위원 선생님들,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성격을 다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여성 인권 신장을 넘어, 가정과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률구조뿐만 아니라 부부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진행, 포럼 개최, 법률 개정 운동 등을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노력하시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다시 실무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는 상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 저 역시 상담소에서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 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을 알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느만큼 지속 가능하며,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역사와 현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개인의 영달을 이루기 위하여나 다른 이들의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의 적폐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받는 사람 중에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법률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역할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스스로의 영달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법률가정상담소를 체험하면서 법률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률가가 사회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법 개정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축으로 된 가족법개정운동의 결실입니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중에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을 연구 중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서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집에 대한 처분을 막을 수 없는 할머니의 사연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하며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왜 혼인 중 재산 분할과 처분에 대한 입법을 하는지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가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미흡한 법을 보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입안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양 기 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은, 국민들의

일상에 그 어느 법보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정법률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정부기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훨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훨씬 유연한 태도로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협력 및 보조가 이루어짐으로써 공공거버넌스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한 명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법이 국민들의 생활에 제 막연한 예상보다 훨씬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적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기에, 그들을 위한 매개자로서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로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에까지도 유지하게 될 확고한 목표 의식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자리를 가리지 않고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내일에 있어 이번 경험을 늘 되새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민 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생의 입장으로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간기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였다. 만약 공공기관이였다면 좀 더 형식적이고 좀 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간이라는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다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일에 투신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이었다. 특히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판사는 재판에 개입하여 한 쪽에게 불공정하게 흘러가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이 깊이 떠올랐다. 물론 민간에 맡겨짐으로써 발생하는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민간의 손에 맡겨지는 것에 마냥 불안함을 느꼈던 내게 지평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업무 중 깨달은 바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결코 문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사안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 속에서 상황을 짜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지어 내담자의 눈빛

이나 말투 속에서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추후에 법조인으로서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때 법조문을 상황에 잘 끼워맞추는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때가 많다. 예컨대 이혼의 경우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협의만 하면 이혼이 되는 것인지, 모두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제는 '남편이 폭행을 했는데 이혼을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렇게 비법률적으로 던져진 문제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일 것이다. 셋째로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책이 실질로 원하는 해결책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상담을 위해 오신 변호사님께서 '위자료를 크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 보다 오히려 적게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상환 의지를 꺾어버리지 않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며, 문제 해결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

나 보 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실무수습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전화상담, 상담참관, 소장 작성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면서 주로 내방해서 상담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급하게 전화로 조언을 얻으려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 주면서 학교에서 배우던 사례들은 정리가 되어있어 답변을 비교적 빠르게 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전화상담이라는 특성상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위원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답변을 해주면서 전화하신 분뿐 만 아니라 저에게도 지식을 얻게 되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담참관은 전화상담보다는 내담자의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담자 중에서도 자신의 진의나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숨기기가 위하여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담 참관은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장작성을 하면서 제 부족함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법문서 작성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 허술한 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실무수습을 하는 다른 학교 실무수습생과 같이 토론을 하며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판례와 예규를 찾아보면서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 재 민

사법연수원 47기

.....

연초 2주간 사법연수원 기관연수의 일환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출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법조인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는 기관연수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수원에 입소하여 지난 1년간 실무교육을 받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끝에 가서 스스로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부분에서부터 절차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연을 품고 상담소에 찾아오신 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한적이거나 실무 일선에서 오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고유한 노하우를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과의 상담에 성심성의껏 임하시는 상담소 상담위원 및 변호사분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담소에 찾아오시기까지 이미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만방으로 알아보시다가, 안고 있는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는 기대를 품고 용기와 수고를 들여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따뜻하고 성의 있게 필요한 조언을 해 드리는 일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상담소는 전화와 인터넷, 대면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정법원에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는데, 상담소를 찾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소의 도움은 단비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수습 활동은, 특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사법제도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선·확충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장을 갔을 때, 어떤 분이 민법상 특별연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소송 중인데, 안 가 본 곳이 없지만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소 상담부스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닿아 제도의 취지와 소송 수행에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관

하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만족해하시며 거듭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껏 책을 통해 공부한 지식이 실제 세상에 나와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남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간 수습을 거치면서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신故이태영 박사께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하여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셨고,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그 뜻을 이어나가며 사회의 일각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은, 제게 장차 나아갈 길에 대한 각별한 영감을 갖게 해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화·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소·소·식



본소 최초 라디오 광고 시작 2월 1일부터 CBS FM 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상담소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시작한다. 광배희 소장과 김병후 정신과 전문의(본 상담소 이사) 등이 녹음에 참여한 상담소 광고는 2월 1일부터 CBS FM의 '강석우 아름다운 당신에게' ((09-11:00)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1:00), 김형준의 레인보우 스트리트 (00:00-01:00) 프로그램에 매일 각 1회씩 방송된다. 본 광고 제작은 베리모먼트(대표:권용진)사의 최성희 부사장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는 동사의 최익환 차장이 맡아주었다.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지난 1월 13일 (금) 본소 강당에서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전국지부 임직원

들과 본부 광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모임은 1부 특강과 만찬, 2부 신년 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광배희 소장의 신년사에 이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권 - 개인의 인격권 보장이 헌법핵심이며 헌법상 인권존중을 위한 민주공화국 운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헌법과 시대정신”을 제목으로 광상진 교수(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강연이 있었고, 2부 신년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의 사회로 지부운영 및 소송구조 사업 안내(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폭력관련 사업 안내(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통계프로그램, 성희롱예방교육(김진영 상담위원) 등을 주제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지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지부소장·이사장의 직함 및 존칭생략, 지부 가나다순임).

강릉지부 오경식 소장, 윤은소, 윤양소, 최미란 / 구리·남양주지부 정민영 소장, 신영미 /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신옥자, 엄윤옥 / 대구지부 유연희 소장, 이선주, 옥은지 / 대전지부 김명진 / 동해지부 김혜동 소장, 고명희 / 목포지부 조혜리 / 부천시지부 박미애, 황영숙 / 성남지부 유향순,

정진경 / 수원지부 박윤선 소장, 권지연, 박은경 / 순천지부 유숙영 소장 / 안동지부 서점에 소장, 권오자 / 익산지부 김성란 소장, 김난희 / 인천지부 이영미, 이영옥 / 전주지부 유순금 소장, 김용숙, 김영수, 임균자 / 정읍지부 송경숙 소장, 송미경 / 제주지부 염순정 소장 / 중구지부 제오복 소장, 양영재 / 진주시부 박말순, 박주연 / 창원·마산 서정희 소장 / 청주시부 홍종호 소장, 정복자, 이자영 / 춘천시부 이명숙, 안은실 / 평택·안성지부 석현숙, 김지애 / 포항지부 김경이 (관련사진 2면)

법무부 국제법무과 본소 방문

1월 11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신은영 사무관, 유현옥 법무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사건들에 관한 소송구조 등 업무협의를 위해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가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다.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총 13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사와 법률구조, 혼인, 이혼, 친자·양자, 부양, 성년후견, 상속 등의 가족법과 새롭게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및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 채권채무, 임대차관련 법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거나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원 연수를 이수하였다.

이번 연수에 대해 “쉽게 잘 풀어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 강사님들의 역량이 느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강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한 전문성이 있어

유익했습니다.”, “가족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의 수강생들의 후기가 있었다.(관련사진 2면)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방학 1기 실무수습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본 소에서의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기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 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실습기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6명이 참여하였다.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강지숙/ 구자인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수현/양기연/이민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나보미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권수희 김세연 김우람 김유빈 손준호 송희원 신지현
안선주 양예지 윤성은 윤여진 이예진 차서진

● 사법연수원 전문분야 실무수습

47기 이재민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양병현 허소담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일 서울가정법원 합의부 조정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12일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평가회의에 참석하였고, 1월 19일 오전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장 퇴임식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2월 1일부터 시작된 본소의 라디오 광고를 위해 1월 4일 직접 녹음에 참여하였다. 10일에는 본소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직무연수에서 법률구조와 가족법 변천사에 대해 강의 했다. 18일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과 관련하여 본소를 방문한 이봉주 교수와 환담하였다. 26일에는 본소의 소송구조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열리는 변호사 법무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했다. 31일에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제5대 박한철 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이혜민, 전현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진아, 방선영, 이승주, 장주용,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수민, 이민주, 정주은, 정태경, 황지혜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1월 10일,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11일 춘천지방법검찰청 강릉지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1월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9일, 16일, 20일, 23일 의정부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7일 수택 1,2,3동 주민센터와 교문2동 주민센터에 가정상담지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1월 7일, 21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장준범, 이승익, 박경화, 구은미, 이재석, 신성욱, 전하은, 류경재, 박기대, 윤용원, 이성림, 안혜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2017년 소송구조사업을 위한 자원 변호사단 위촉(총26명)을 하였다.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

지원(총8회)과 광주지방법원(총5회)에서 실시하였다. 1월 18일, 25일 성남지원에서 협의이혼의무상담을 실시하였다(총2회, 5쌍의 부모). 공영서, 김미혜, 김민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11회 실시하였다. 1월 5일, 12일, 26일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이동식 가정폭력상담을 실시하였다. 공영서, 김정혜, 김현명, 김현수, 박지훈(성남), 서정식, 양승철, 임용호, 전태우, 정원진, 차명심, 최강호, 한두환, 홍성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울산지부

1월 12일 정기이사회 및 신년회를 실시하였다.

익산지부

통권 제2호 익산지부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1월 25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상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1월 10일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

담, 11일 전주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 16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제주지부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이재경, 김창건, 장상현, 박진석, 정수경, 임유정, 박은정, 황은하, 여지은, 김영옥, 홍지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월 20일 2017년 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1월 9일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업무협약을 하였다. 10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남상업, 고정향, 오유경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6년 12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12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1,778건으로 본부가 6,235건, 지부가 5,543건이었다.

본부는 5,648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70건·소장 등 서류작성 176건·소송구조 4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942건·화해조정 572건·소장 등 서류작성 24건·소송구조 5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64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1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1.4%→1.6%), 양육비(6.8%→7.0%), 입양(1.4%→1.6%), 파혼(0.2%→0.3%), 이혼무효·취소(0.3%→0.5%), 개명(0.5%→0.6%), 성년후견(1.1%→1.5%),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가 0.4%로 가장 많았다.

본부의 법률상담 5,64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52건(20.4%), 전화상담 4,258건(75.4%), 통신 및 인터넷상담 210건(3.7%), 순회상담 27건(0.5%),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1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474		
법률상담 (6,145)		
면접	전화	통신
1,043	4,877	225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199	97	33

*2017/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44,851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235	1,152	4,258	210		순회 27 지상 1	5,648	370	176	41
강릉 (033) 652-9555	67	50	13				63	4		
거제 (055) 633-7636	72	62	9				71		1	
광주 (062) 672-6011	51	19	32				5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54	95	44				139	14	1	
군산 (063) 442-1560	119	40	67				107	12		
대구 (053) 745-4501	711	152	1	1		출장 335	489	222		
대전 (042) 520-5258	205	33	169				202		3	
제주 (064) 753-9421	204	47	140			출장 17	204			
동해 (033) 535-0188	77	54	23				77			
목포 (061) 273-2514	121		120				120	1		
부천 (032) 667-2314	256	56	182	1			239	17		
성남 (031) 707-6661	356	230	86	4			320	34	2	
수원 (031) 243-4600	406	142	150	3		출장 53	348	57	1	
순천 (061) 753-9910	153	41	108				149	4		
충구 (02)2238-6554	183	128	55				183			
안동 (054) 856-4200	50	7	35				42	8		
울산 (052) 246-9568	104	36	63				99		5	
익산 (063) 851-5113	260	65	193				258		2	
인천 (032) 865-1120	285	146	129				275	5	1	4
전주 (063) 244-2930	396	199	61	134			394		1	1
정읍 (063) 535-3705	93	15	61				76	15	2	
진주 (055) 746-7975	118	31	54				85	33		
창원·미산 (055) 261-0280	308	186	68	2			256	50	2	
청주 (043) 257-0088	167	59	67	3			129	35	3	
춘천 (033) 257-4688	128	16	10			출장 42	68	60		
태백 (033) 554-4004	131	89	19			출장 23	131			
평택·안성 (031) 611-4251	98	38	59			출장 1	98			
제천 (043) 644-5690	186	60	126				186			
포항 (054) 283-7555	84	11	72				83	1		
지부총상담	5,543	2,107	2,216	148		출장 471	4,942	572	24	5
총 상담	11,778	3,259	6,474	358		출장 471 순회 27 지상 1	10,590	942	200	46

**2016/1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3,183건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대출금 변제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169

담당 : 이해민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7세)은 2001년경 화장품 도소매업을 시작하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2003년경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 변제도 못하였고,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도 사용하였다. 그해 말 신청인은 적자를 이기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며 얻는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만 유지하였다. 현재까지도 신청인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청에서 자활근로를 하여 받는 월고 4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30)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된 것을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6-241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용 : 피고들(여, 41세, 39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

(여, 74세)와 전 배우자 김**(남, 77세)사이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들은 전 배우자의 남동생과 그의 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생부와 생모가 혼인신고 없이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전 배우자와 본인 사이의 친자로 출생신고 한 것이다. 원고는 1986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고들과도 전혀 왕래가 없이 지냈다. 현재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생활고를 겪고 있어 수급지원을 받고자 하나 친자가 아닌 자녀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10.7.)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외도와 악의의 유기로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법률구조 2016-270

담당 : 안봉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9세)와 피고(남, 59세)는 1981년 10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호주, 서울, 뉴질랜드로 옮겨 다니며 혼인생활을 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뉴질랜드에서 함께 생활할 당시 피고는 회사 야근을 핑계로 외박을 자주 하였는데, 상간녀가 원고를 찾아오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원고는 충격으로 자가면역질환에 걸려 더 이

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춘천지방법원 2016.9.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년간 아동을 양육해 온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6-334

담당 : 백중현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남, 57세)은 2012년 11월 위탁아동인 사건본인(남, 12세)을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4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시설에 사건본인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건본인은 친부모의 보살핌 없이 영아시설, 소년의 집 등을 전전하며 성장하였다.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집에 처음 위탁되었을 때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성장기를 보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청구인과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제약이 많았고, 또한 사건본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부산가정법원 2016.10.5.)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

법률구조 2016-360

담당 : 최희원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35세)와 채무자(남, 42세)는 2005년 11월 혼인해 슬하에 사건본인(남, 10세)을 두었지만, 이후 2011년 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은 채권자가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40만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속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본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갈수록 사건본인의 교육비는 증가되고 있다. 이에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자발적 양육비 지급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9.1)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자녀의 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상향 조정

법률구조 2015-423

담당 : 강호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증액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8세)과 상대방(남, 39세)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력 및 생활비 지급 등의 잦은 마찰들로 인하여 2014년 7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혼 소송도중 사건본인이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청구인으로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우선이었

고 사건본인의 치료비를 예상하기 어려웠기에 월 4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하였다. 하지만 4세가 된 현재까지도 사건본인의 신체발달은 생후 4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혼자서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순위에서 밀려 사설치료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 치료비는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10.7.)

1. 상대방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0000(본소), 2013드단0000(반소)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2016.10.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월 60만 원으로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6.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60만 원씩을 매 월 26일에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50%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혼인비자 문제로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45

담당 : 이원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는 중국국적의 피고(남, 56세)와 2015년 1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상태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위해 피고에게 혼인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전에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실로 인해 중국으로 강제 출국 당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혼인비자 발급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고는 2015년 10월 경 집에서 나갔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8.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를 불성실하게 지급한
전남편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6-59

담당 : 배정완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4세)과 상대방(남, 51세)은 1993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1(남, 24세)과 사건본인2(여, 18세)를 두었으나, 2002년 7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을 친권자로,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비정기적으로 1년 3개월간 월 20~70만원(총 800여 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이혼 후 전자회사 및 분식점에서 일을 하며 사건본인들을 충실히 양육하여왔다. 다만, 현재 사건본인2를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건본인2를 양육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2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6.11.16.)

1. 사건본인 2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2의 장래 양육비로 2016.7.7.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한
외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70

담당 : 고영소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내용 : 원고(여, 28세)와 베트남인인 피고(남, 37세)는 2011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2년 경 혼인했다. 혼인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는 사건본인(남, 3세)을 임신했다. 당시 피고의 비자문제로 원고는 한국에, 피고는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임신사실을 알린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며 곧 입국할 피고와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했고, 2013년 7월 경 홀로 사건본인을 출산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인의 집에 머물고 싶다고 했고, 원고와 사건본인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이내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고, 원고의 연락을 피했다. 불안했던 원고는 피고의 SNS를 살펴보고, 피고가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 한 사진, 그 사이에서 태어난 듯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했다. 원고가 사진에 대해 물었지만 피고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홀로 지적장애3급인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10.2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양육비 등 분할 지급 인용**

법률구조 2016-106

담당 : 김철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0세)과 피신청인(남, 48세)은 1997년

1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19세)과 사건본인2(남, 17세)를 두었으나, 2013년 7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근 2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 (인천가정법원 2016.8.2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호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4.26.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양육비의 일부인 1000만 원을 2016.9.1.부터 2017.1.31.까지 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출국 이후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법률구조 2016-173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6세)는 전혼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배OO(여, 18세)를 홀로 키우던 중 2008년 경 중국국적의 피고(남, 42세)와 재혼하였다.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성폭행했고, 이후 자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치료와 심리상담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생활하였다. 마땅한 소득이 없었던 원고는 당장 생활비 및 자녀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녀에 대한 미성년자강간죄 고소를 취하한 뒤 재결합하였다.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사라졌고 남남처럼 지내다시피 하며 또다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

러던 중 2013년 경 피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하기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8.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5년 전 가출하여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은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250

담당 : 서경화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3세)는 1980년 11월 경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다. 혼인 생활 초기부터 피고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와 두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피고는 유흥에 빠져 골프와 음주에 소득의 대부분을 썼고, 원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는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2000년 경에는 가족이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유흥비로 탕진한 뒤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혼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일을 했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실체없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8.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6-252

담당 : 김민욱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피고(여, 46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0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전혼 배우자인 소외

망 손OO과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 이때문에 원고의 시모를 비롯한 시가 친족들은 원고에게 망 손OO의 조카를 자녀로 출생신고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으나 직접 양육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소외 망 손OO이 사망한 이후 소외 망 조OO과 혼인했는데, 망 조OO에게는 장애를 가진 전혼 자녀가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나 망 조OO이 사망한 뒤로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자녀로 되어 있어 부양가능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원고는 모녀관계라고 할 수 없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기초생활수급 지정을 받고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친생추정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11년간 출생신고를 못한 사건에 대해 친자관계를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6-308

담당 : 신학수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52세)와 피고1(남, 51세)은 1996년 4월 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 그러나 피고1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5년 경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피고1과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는 홀로 식당 일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고, 그 와중에 피고2의 생부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2를 임신하였다. 2006년 6월 경 원고가 피고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사건에서 승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2를 출산했다. 민법 제 84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피고2는 피고1의 친생자로 추정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2를 출생신고 할 경우 피고2가 피고1의 자녀로 등재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2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11년간 방치하게 되었고, 피고2는

11세가 될 때까지 초등학교입학도 못한 채 집에서 생활을 해왔다. 주민의 신고로 피고2가 아동방임사태 조사 대상이 된 후에야 원고는 소송 도움을 받아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금이라도 피고2의 출생신고 및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6.11.15.)

1.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부인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6-309

담당 : 강은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남, 43세)과 상대방(여, 42세)은 중국에서 2002년 1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4세)을 두었으나, 2005년 7월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부양, 교육비를 3000위안(한화 약 55만5천 원 가량)씩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건설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어렵게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수원지방법원 2016.10.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0만 원을 3회로 나누어 2016.10.31.까지 60만 원, 2016.11.30.까지 60만 원, 2016.12.31.까지 80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000-000-00-00000000)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되, 그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원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6.10.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20만 원씩을 1항 기재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다만, 2016. 10월, 11월, 12월분은 2017.1.31.에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청구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매월 2회 이상

4.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실직과 지병으로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327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윈 신청인(남, 50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용직에 종사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1999년경 신청인이 다니던 의류공장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였고, 신청인은 10개월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실직을 하였다. 신청인은 당장의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지만, IMF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졌고 지병인 허리디스크마저 심해져서 일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2006년경 신청인은 대리운전 사업을 한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신청인 명의로 16대의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으나, 지인은 기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 등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신청인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마땅한 거처도 마련하지 못한 채 노숙을 하게 되었다. 노숙으로 인해 신청인의 허리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2016년 4월에는 난치성 질병인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현재는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받고 있는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채무자를 면책한다.

**남편 채무 보증과 사업 폐업으로 채무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338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의 배우자는 1995년경 인쇄소를 시작하였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당시 신청인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지만, 1997년경 배우자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채무는 신청인의 몫으로 돌아왔다. 배우자는 채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신청인은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며 부도난 인쇄소를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운영 당시 신청인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았지만,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다. 신청인은 현재 자녀가 마련해준 임대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월 9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생계만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기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채무자를 면책한다.

**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고통받던 탈북자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346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2004년경 탈북한 신청인(여, 49세)은 2011년경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신청인은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으나, 탈북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돌려막기로 이어졌다. 이후 2014년경 신청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 취직도 하였지만, 역시 탈북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오래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결국 신청인은 2016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고, 국가에서 받는 수급비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다. 현재 신청인은 신용불량까지 더해져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강제조정**

법률구조 2015-462

담당 : 김종숙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청구

내용 : 청구인(여, 44세)과 상대방(남, 48세)은 2008년 6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8세)을 두었으나, 2008년 1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당시 상대방과의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양육비에 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이었지만, 보험회사, 작은 회사 경리, 옷가게 점원 등으로 일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반면 상대방은 직장에 근무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양육비를 요구하자 불같이 화를 내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강제조정 (부산가정법원 2016.11.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0,000원을 2016.12.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상대방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 전부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6.1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심판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자녀의 부를 상대로 한 인지 등 청구에서 승소판결

법률구조 2016-38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및 친권자지정 등

내용 : 원고 2(여, 36세, 국적 중국)는 2001년경 피고(남, 35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피고 부모의 반대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후 피고는 다른 여자와 2015년 3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0월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2와 피고는 2015년 3월경에도 서로 잊지 못하여 만났고, 원고 2는 2015년 12월경 원고1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원고1의 출생 당시 원고2에게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1을 거의 매일 보러 왔으나 원고1의 출생신고는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다. 이에 원고 2는 원고1의 인지 및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11.02.)

1. 원고 1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 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2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 2에게 원고1의 양육비로 2015. 12. 7.부터 2034. 12. 6. 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녀를 유기한 전남편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등 조정

법률구조 2016-120

담당 : 옥치돈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등

내용 : 청구인(여, 22세)과 상대방(남, 24세)은 법률상 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계속되는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2014년 3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혼 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다니거나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를 본 이웃주민이 신고를 하여 사건본인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후 2014년 9월경 사건본인을 데려왔다. 당시 사건본인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진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전혀 말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여 청구인이 일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월세, 도시가스비 등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현재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상대방이 공동 지정되어 있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6.11.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7년 2월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1월,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2월 23일(목)	부부 갈등의 분석과 진단
3월 23일(목)	뇌의 속성과 다름
4월 27일(목)	마음의 구성과 감정
5월 25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6월 22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7월 27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사전예약 필수)
 - ▶ 일정 :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이혼전 1단계 참여자, 사전예약 필수)
 - ▶ 일정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 2월은 2월 27일에만 운영되고 13일은 쉽니다)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한부모가정을 위한 일일교육

- ▶ 일시 : 2017년 2월 21일(화) 11:00
- ▶ 대상 : 한부모 가정의 모자 (사전 접수 필수)
- ▶ 일정 및 강의주제

1부 - 11:00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지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2부 - 12:00 점심식사

3부 - 13:00 웃음치료 -오늘 내가 사는 게 즐거운 이유

4부 - 15:00 한부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강의 진행되는 동안 유아, 아동 탁아프로그램 있습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

성년후견 신탁

(가제)

일시

2017년 3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좌장 :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배인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토론발표| ▷ 조성혜(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장)

정용신(서울가정법원 판사)

배정식(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현소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창훈(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